

디지털농업 · 농업유전자원 분야 지식 공유

농진청,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위해 온라인 행사 개최 농업현장 데이터통합시스템 · 자동영상분석 기술 등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국제농업연구연합기구(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세계작물다양성재단(Crop Trust)과 공동으로 '디지털농업과 농업유전자원 관리 기술에 관한 지식공유 행사'를 26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농업과 농업유전자원 분야의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연구농업기관 간 상호의견공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적 농업 연구 개발(R&D) 체계 전환에 맞추어 출범하는 핵심 분야 연구개발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일차적인 지식공유 행사다. 행사에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국제미작연구소(IRRI) 등 14개 국제농업연구기관과 대학을 비롯해 세계은행,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의 디지털농업 또는 농업유전자원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식량안보 증진의 핵심요소인 디지털농업과 농업유전자원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12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두 분과로 나눠 주제발표를 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한국 농업현장 데이터통합시스템, 국제 곡물가격 조

기경보시스템 및 원격탐사 기반 작물 생산량 추정 시스템 등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디지털농업 기술이 소개됐다.

이어 두 번째 분과에서는 유전자원 다양성 격차 분석 기술을 비롯해 자동 영상분석 기술 및 표현체 기술을 활용한 종자 특성 분석 기술 등 유전자원 다양성 증진과 혁신 관리 기술이 소개됐다. 또한 행사 참여자들은 농진청과의 연구협력 교류 등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국제협력 발판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전 세계 14개 국제농업연구기관을 운영하는 CGIAR은 국제적 농업 정책 해결을 위해 다국가·다기관이 참여하는 33개 농업 연구개발 협의체 구성을 발표하고, 2022년 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가운데 국제식량정책연구소와 세계작물다양성재단은 디지털 시스템 협의체와 농업유전자원 협의체를 각각 주관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최선태 과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디지털농업과 농업유전자원 분야의 연구개발 국제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CGIAR이 주도하는 국제적 농업 연구 개발 협의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이 26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농업과 농업유전자원 관리 기술에 관한 지식공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내달 한달동안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

농축산검역본부, 금지식물 단속 강화 ·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차

해외직구를 통한 식물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열대 생과실 등 금지식물 및 종자류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객을 통한 반입이 감소하는 한편 국제우편·특송 등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이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별검역을 통해 금지식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 식물류로 인한 해외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특별검역 기간에

국제 우편물 및 특송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 탐지견을 투입하고, 국제우편선터에 신규로 설치된 검역용 X-ray를 활용하여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물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류·묘목 등 재식용 식물과 수입이 금지된 망고·구아바·통간 등 열대 생과실이다. 아울러, 11월 해외직구 식물류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해 금지식물 반입 등 불법 수입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들여올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시행에 맞춰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회사 약 80개 사) 및 해외직구 물품통관 대행사(약 30개 사), 수도권 지하철 등을 통해 해외직구 시 식물류 검역에 대한 유의사항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물류 수입 증가에 대응하여 불법 반입 식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직구 업체를 상대로 식물검역 홍보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금지식물 및 종자류 등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디지털 전환 지원교육, 전북서도 제공

한국생산성본부, 중기 등 대상... 내달 19일까지 접수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인완기 이하 KPC)가 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 기관 대상 '디지털 전환 지원교육'이 전북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전환 지원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경제 확대에 맞춰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문, 현장형 멘토링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ICT 기반의 서비스 활용 전반에 대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1:1 멘토링 교육을 기업 당 16시간까지 제공한다.

전주시 인후동에 소재한 감점머리 전선자 대표는 "디지털전환 지원교육으로 PC와 스마트폰을 사용해 모바일 활용 교육을 받고 고객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운영을 통해 고객들과 실시간 소통하고 이를 통한 홍보와 매출신장에도 도움이 돼 주변자인에게도 교육신청을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취원)하정창수 이사는 "디지털 전환 지원교육으로 OA 활용능력교육을 통한 컴퓨터 활용방법, 파워포인트 등 사무업무능력이 향상돼 큰 도



한국생산성본부 전경

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KPC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1957년에 설립해 올해 창립 64주년을 맞았다. 컨설팅, 교육, 생산성연구, 지식조사, 자격 인증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내 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KPC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생애경력설계 관점에서 전직지원 전문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신청 마감은 11월 19일까지이며 신청 순서에 따라 700개 기업에 지원한다. 교육신청 및 상담은 디지털 전환 지원교육' 신청 사이트(koreadckr) 또는 KPC ICT교육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대형유통망MD 초청 구매상담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대형유통망 MD(이하 구매담당자) 초청 구매상담회(이하 상담회)'를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담회에는 CS홈쇼핑 이마트에브리데이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등 국내 11개의 대형유통사와 사전에 참여신청을 받은 이고정식품 등 도내 31개사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상

담회에서는 대형유통사와 참여기업간 일대일(1:1)로 제품의 특징 및 우수성, 가격 경쟁력, 생산 능력 등 입점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해 전반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제품의 차별성과 상품성을 꼼꼼히 살피는 대형유통망의 구매담당자와 우수성과 특징을 부각시키려는 참여기업의 열의 속에서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전북경제 허리' 중견기업 2곳, 완주에 추가 투자

도, 대주코레스 · 아데카코리아와 총 1300억 투자 협약

전북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 중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대주코레스(주)와 반도체 재료를 생산하는 아데카코리아(주)가 완주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26일 경북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서 대주코레스(주), 아데카코리아(주)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주코레스(주)는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3만 58㎡)에 843억원을 투자해 미래형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을 설립한다.

또 아데카코리아(주)는 5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재료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두 기업의 투자로 전북에는 1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예상돼 완주군은 물론 전북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와 완주군은 투자협약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과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번 투자협약은 산업부에서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와 연계한 중견기업 투자유치 지자체 합동 IR에서 체결돼 의미를 짚게 했다.

IR 행사에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 김사열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정환 한국산단공 이사장, 강호갑 한국중견연회 회장,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대주코레스(주)는 지난 1972년에 설립돼 제규어,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등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대주코레스(주)는 도내에 본사를 둔 전북도 대표 중견기업이다. 특히 지난 2019년 5,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 올해에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전북농협, 신규 입사직원과 넥스퍼츠 Go Together 행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6일 농협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12월 신규 입사한 농축협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가는 넥스퍼츠(Nexperts) Go Together' 행사를 가졌다.

넥스퍼츠(Nexperts)는 영문 N+전문가(Expert)의 합성어로 N은 농협(NH)과 다음(Next)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하며, 농축협 신규직원을 전북농협 상호금융의 차세대 마케팅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상 직원들은 지난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5개월간 소속 농축협 신용사업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창업기업 전자상거래 판로지원 '맞손'

국민연금,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6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와 전북지역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인 2021 창업기업 전자상거래 판로지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1 창업기업 전자상거래 판로지원 사업은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면서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애로사항이 있는 업력 7년 이내의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당 30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게 되며, 콘텐츠 제작, 특별판매 기획, 마케팅 방송 등의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공단은 이외에도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동반성장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억7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또한 성과익 및 협력이익 공유제를 통해 공단 보유 사옥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최대 50%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코로나 19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북지역의 창업기업이 어려워진 때에 비대면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가을맞이 고객 대상 '세 가지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은 가을의 풍성함을 고객들과 함께 하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벤트는 지난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적금 상품에 신규 가입하고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또는 월일뱅크에서 해당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600명을 추첨한다.

이벤트는 11월 7일까지 NH농협은행 유스브랜드 인스타그램(nh20thachon)을 팔로우하고,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서 '우리 아이가 은행에 가서 제일 좋아하는 일을 맛볼로 남긴 고객을 대상으로 50명을 추첨한다.

마지막 이벤트는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NH농협은행 공식 인스타그램(nh.nonghyupbankofficial) 혹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nh.nonghyupbank/) 계정을 팔로우하고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 '우리 아이의 첫 통장이 무엇이었는지' 댓글을 작성한 고객을 대상으로 50명을 추첨한다.

각각의 이벤트에서 당첨된 700명의 고객에게는 '물리'와 함께하는 은행 놀이' 박스를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



국립공원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 아영장까지 확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를 아영장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는 탐방객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편의를 제공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연 보전에 기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 소백산에서 처음 시작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서비스 장소를 탐방로 입구에서 아영장까지로 확대해 지리산 한려해상, 가이산, 오대산, 월악산 등 9개 공원 14개 아영장에서 지역의 특산물로 구성된 도시락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아영장 도시락 메뉴에는 ▲한려해상 보양식 해산물, 죽순 어묵 떡볶이, 깨새우 감바스 ▲월악산 능이 잡버섯 전골, 울영이 해장국 ▲오대산 산나물 도시락 등이 있으며, 산행 도시락 메뉴에는 ▲무당산 정식 ▲내장산 떡갈비 도시락 ▲계룡산 공주알밤 소불고기 등이 있으며, 카카오톡을 통해 도시락 제조업체로 직접 주문 후 이용 가능하고 아영장 또는 탐방지원센터에 비치된 무인함에서 도시락을 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공원별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제조업체의 카카오톡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이용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하고, 국립공원은 친환경 도시락 홍보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주간 도시락 인증샷 이벤트를 SNS를 통해 실시한다.

송영민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국립공원 친환경 도시락은 자연과 지역의 가치를 담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비스"라며, 가을철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김기우 기자